

I. 통상현안정보

■ 對이라크 수출의 성패는 물류에서 갈린다.

- 이라크 종전 1 주년이 되던 지난달은 이라크 전역에 걸쳐 전후 가장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던 때였음. 불과 한달 만에 미군 사망자만 139 명으로 전쟁 기간 중 사망자보다 많았음. 경제면에서도 막대한 타격이 가해졌음. 특히 물류면에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군사 작전이나 치안불안을 이유로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되거나 저항세력이 무단 점거하는 사태가 속출했기 때문임.
- 한편, 올 들어 3 월말까지 우리나라의 이라크 수출실적은 인접국을 경유한 간접수출까지 포함하여 대략 1 억 6 천만불인데 중고차와 가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하였음.
- 이들 중고차와 가전 제품 중 약 90%가 요르단 남부 아카바항이나 이라크 남부 바스라항을 통하여 고속도로를 타고 운송되는데 공교롭게도 양대 고속도로가 모두 막히거나 저항세력의 공격권에 들어온 것임. 게다가 4.15 일부터 수입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물류 대란이 발생하여, 4 월말을 고비로 고속도로 운행이 재개되긴 했지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님.
- 가전제품이나 중고차 모두 부피가 큰데다 보험료마저 비싼편이어서 수출가격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50%에 달함. 이라크 수출의 성패는 물류에서 갈린다는 말이 과언이 아님.

□ 이라크 수출화물 운송시 착안사항

- 이라크의 치안 여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100% 안전한 방법을 택하기란 거의 불가능 한 실정임. 주어진 여건하에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① 내륙 운송은 지역 토박이 출신의 도움을 받아야

- 이라크 내륙운송 화물에 대해서는 보험도 커버되지 않고 있음. 수송중인 화물이 고속도로상에서 강탈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음. 치안부재를 틈타 소위 ‘알리바바’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인데 니산차 딜러의 경우 자구책으로 고속도로 인근 마을 부족장의 추천을 받은 토박이 출신 경호원을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털리지 않았다고 함. 일종의 물류자원 현지화로서 가전 회사와 같이 대규모 물량을 지속적으로 수송해야 하는 경우 채택해 볼 만함.

② 안전, 비용, 시간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따라 운송루트가 달라진다

- 바그다드행 수출 화물의 경우 안전을 가장 중시한다면 터어키 메르신(mercin) 항구를 거쳐 이라크 북부로부터 내려오는 루트를 권할 만함. 그러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하므로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짐. 비용만을 생각한다면 요르단 아카바 항구에서 육로로 트레빌 세관을 거쳐 수송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나 노상에서 털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 한편, 딜리버리 기간을 중시한다면 두바이 제벨알리 경유 이라크 바스라 항구를 이용해야 하나 바스라(움카스르) 항구의 화물 처리 능력이 낮은데다 바스라->바그다드 노상 안전도 취약한 편. 아울러 한국산 제품의 항구별 이용 비율은 대체로 [아카바 7 : 바스라 2 : 기타(타르투스, 메르신) 1]로서 아카바 항구를 가장 즐겨 이용하는 편.

③ 貨主에따라서 오퍼기준도 다르다

- 美 CPA 나 PMO 가 발주하는 물자의 경우 [C.I.F. 쿠웨이트 항구]가 적합함. 그러나 간혹 발주자가 딜리버리 조건을 [C.I.F. 바그다드]로 정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화물을 쿠웨이트까지 선적한 다음 미군측의 컨보이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이라크 정부 구매 물자에 대해서는 [C.I.F. 바스라]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므로 수출자는 바스라 항구까지만 책임지면 됨. 대부분의 수출화물에 해당하는 민수용 제품의 경우 수입상(화주)이 원하는 선적조건을 수용하면 됨. 수입상별로 안전하게 애용하는 운송루트가 있으므로 바그다드에서 화물을 인계해주는 방식이 아니라면 굳이 수출자가 강요해서는 안됨. 가급적 수출자가 이라크 내륙운송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좋음.

④ 트러킹 업체 이용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 피하려고 해도 간혹 부득이하여 수출자가 바그다드까지 화물을 운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라크내에서 뿐 만 아니라 쿠웨이트, 요르단, 시리아, 터키, 이란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국에는 상당수 트러킹 업체들이 이라크행 화물을 취급중이어서 비교적 손쉽게 찾을 수 있음. 그러나 이들도 대부분 사고시 책임을 지지않기 때문에 가능한 중소기업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업체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함.

(문의처 : 바그다드무역관 김규식 kotriraq@hotmail.com)